

# “광양항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 인물 포커스

### 여수광양항만공사 차민식 사장

‘총 물동량 3억300만톤’, ‘컨테이너 물동량 240만 1,000TEU’ 지난해 여수·광양항의 화물처리 실적이다. 이같은 성과 바탕에는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남다른 공로가 컸다. 차 사장을 만나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318만㎡규모 3단계 투기장 개발 세계 10대 항만 진입 교두보 마련 올해 총 물동량 3억1천만톤 목표

- 2018년 주요 성과와 의미를 설명해 달라.

▲먼저 광양항 개항 이후 32년 만에 총물동량 3억톤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해운·항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과 함께 이룬 항만공사의 핵심 성과이자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항해의 시작을 뜻한다.

3억톤 달성은 ‘산업항만’에서 ‘종합항만’으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계 10위권 항만으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공사 설립 이후 8년 연속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이자 수출입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공사의 첫 번째 성과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318만㎡ 규모의 3단계 투기장을 광양만권 산업단지과 연계해 제조와 해양 신산업, 상업·업무·교육 연구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산업 물류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근로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

-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소개한다면.

▲첫째, 광양만권 산업단지과 연계해 광양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3투기장 항만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리 공사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3,394억원을 투자해 318만㎡ 규모의 매립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둘째, 해양산업클러스터 시설 구축 및 R&D 기업 유치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중마

일반부두와 1단계 4번 선석에 대한 시설 구축을 단계별로 완료하고 R&D 기업을 유치하겠다.

셋째, 여수지역 부두의 체선 해소를 위해 제2석 유화학부두를 건설한다. 2022년까지 301억원을 투입, 1만톤급 2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 올해 물동량 목표와 컨테이너물동량 증대 방안은.

▲올해 물동량 목표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3억1,000만톤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15만TEU가 증가한 255만TEU를 목표로 광양항 300만TEU 자립항만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신규 원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서비스 부족에 따른 다른 항만 이탈 수출입 화물을 광양항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환적화물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경쟁력 강화를 위한 24열 크레인 3기 설치에 이어 상하차 지원 문제와 부두간 셔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컨부두 차량출입시스템 설치, 하역장비 지원 등 항만운영 효율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 배후단지 현황과 신규 우량기업 유치방안은.

▲120여만평(388만㎡)의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는 현재 5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배후단지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43만TEU를 처리했다. 일자리도 무려 48% 증가한 1,700여명을 기록하는 등 고무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초우량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는 2020년까지 60여개 기업, 2,500여명의 종사자가 연간 60만TEU 이상의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철학이 있다면.

▲지난 36년동안 쌓아온 해운항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공기업, 국가의 항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공기업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살아있는 전문가 조직’, ‘현장에서 답하는 조직’,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 다시 말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현장에서 생각하고 답하는 국민의 공사를 만드는 것이 제 평소 경영철학이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 ‘여수형 어린이집’ 2개소 문 연다

### 해오름·리틀세화어린이집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수형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여수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권오봉 여수시장의 직접 시책 중 하나이다.

시는 지난 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후 서류평가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해오름어린이집’과 ‘리

틀세화어린이집’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어린이집 두 곳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준비하던 곳으로 개방성과 운영의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자율평가 세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는 여수형 어린이집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매월 400만~570만원가량 지원한다.

한편, 2월 현재 여수시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4개소다.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여수형 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순천 할머니들 그림일기 단행본 출간

###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지금은 혼자서 은행일도 봅니다. 그래서 비밀통장도 만들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행복입니다.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공부도 그림도 너무 좋아 자랑도 많이 합니다.”

여든 앞에 글과 그림을 배워 전지를 열고, 작가가 돼 SNS를 뜨겁게 달궜던 순천할머니들의 감동 인생일기가 단행본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남해의 봄날)’로 출간됐다. <사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는 고단했던 하루하루를 힘껏 살아온 순천의 할머니 스무 명이 뒤늦게 글을 익히고 그림을 배워 지나는 인생을 풀어낸 그림일기를 엮은 책이다.

단행본은 작가가 된 할머니들은 순천그림책도서관에서 한글작문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 인생 그림일기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다. 그림책 작가와 함께 선을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



20명의 할머니들은 2년 동안 꾸준히 그림을 그렸고, 자유롭게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순천과 서울 등에서 원화 전시를 열었다.

이 전시가 SNS,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단행본 출간까지 이어진 것이다.

오는 16일 순천그림책도서관에서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출간기념 북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민주당 여수갑·을 지역위원장 선임 진통

### 중앙당, 여론조사 반영키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여수갑과 을, 지역위원장 두 명을 선임하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지역위원장 후보자들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조강특위 회의를 열고 여수 갑과 을 지역위원장을 선임, 당 최고위원회에 추천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수 지역위원장 추

천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으로서 공개적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지역민심을 달래고 해당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몸으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 중앙당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식은 일반국민 대상 50%와 해당 지역 민주당원 50%를 합산하고 여기에 다른 평가 요소를 더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에 응한 모든 후보자들 전체 대상이 아닌 일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과연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방식이나 내용, 결과에 대해 수용할 지는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공모에 나섰던 한 후보자는 “이렇게 자주 지역위원장 결정이 이뤄지면 흐트러진 당원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붙들어 매기 어렵다”며 “사실상 당내 예선, 다른 당과의 경쟁 등 총선 일정이 촉박한 것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강특위가 추천한 여수갑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여수를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역위원장 선임결정을 보류하고 재심의토록 권고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는 여수갑 지역에서 김유화(55·여) 전 여수시의원, 김집유(57) 전 총선 후보, 이신남(52) 청와대 전 행정관, 주철현(61) 전 여수시장, 한정우(52) 전 여수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한현석(49) 기업인 등이 접수했다.

여수을지역에서는 권세도(61)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빈(67) 전 여수시의원, 김형근(65) 전 도의원, 박완규(55)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기명(57) 변호사 등이 위원장에 도전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 순천 설 연휴 관광객 전년비 42% 증가

### 순천만정원 5만여명 방문

순천시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11만1,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2%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습지 포함해 순천만국가정원 5만8,044명, 낙안읍성 3만876명, 드라마촬영장 1만4,083명, 송광사 3,586명, 선암사 3,209명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은 순천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국가정원 등에서 즐거운 연휴를 보냈다.

시는 설 연휴기간 완벽한 관광객 맞이 위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사전에 수립, 연휴기간 동안 10개반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했다.

주요 관광시설인 숙박 및 음식점 등을 정비하고 관광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관광객 유치 1,000만명을 목표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등 주요 관광지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보성 전 국민 차마시기 캠페인

보성군은 최근 보성녹차휴게소와 보성역 등 귀성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전 국민 차마시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보성차생산자조합, 보성을 새마을부녀회, 벌교읍 생활개선회 등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보성 녹차를 적극 홍보하고 설을 맞아 보성을 방문한 귀성객에게 보성녹차 500개를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 구례 귀성객 대상 농촌유치 홍보

구례군은 최근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농촌유치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구례공영버스터미널과 구례구역에 도착한 도시민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함께 귀농귀촌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례를 찾는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 최적지로서 구례를 인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 광영동 수변공간 공모 주민설명회

광양시는 최근 광영동사무소에서 ‘광영동 입구 수변 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모사업의 개요, 추진 일정, 실행계획, 사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희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광영동 지역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을 포함한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 전남소방 119섬나희 설 맞이 봉사

전남소방 직장동호회 ‘119섬나희’는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및 투병 중인 퇴직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종량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누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모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9섬나희는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연탄배달, 방충망 교체, 명절 기간 위문금 전달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